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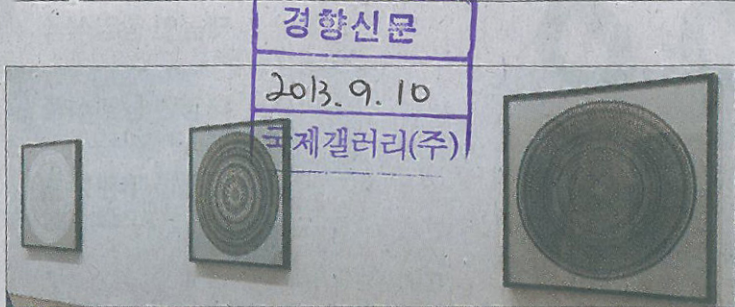
인도 이마장식 '빈디'로 보편적 질문을 던지다

여성작가 바티 커 국내 첫 전시

인도계 영국 여성작가 바티 커(44)가 국내에서 첫 개인전을 열고 있다. 최근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그의 작품세계를 살펴볼 수 있는 자리는 국제갤러리(서울 삼청로)에 마련된 작품전 'Anomalies'(기형)다.

영국에서 태어났지만 인도 뉴델리에서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그는 인도 여성들이 이마에 붙이는 '빈디'를 활용한 평면작업, 나무 등을 소재로 한 대형 조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산스크리트어로 점을 의미하는 빈디는 '세 번째 눈'이라는 상징과 더불어 인도와 주변국에선 사랑·존경·번영을 뜻하는 패션 장신구이기도 하다.

작가의 평면작업은 긴 시간 빈디를



화면에 끝없이 반복적으로 붙여나가
는 것으로 시작된다. 색깔과 크기가
다른 수많은 빈디가 원이나 사각형태
를 띠고, 독특한 질감과 색채를 드러
낸다. 반복적인 패턴에 빈디가 가진
다양한 상징이 어우러지면서 마치고
대신속 문양을 떠올리게 한다. 조
각작업은 빈디를 붙이거나 짐승·괴
물 형상 등을 매달아 다양한 의미를
이끌어내는 작품, 반인반수의 혼성체
여성상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전시
에는 알렉산더의 인도 진격을 말했
는 전설 속의 '말하는 나무' 조각 등이
출품됐다.

작가가 작품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계급·권력·성·가정 등에 대한
기존 관념을 뒤흔들어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예술은 결국 (모든
것에 대한) 질문”이라는 그는 인도의
문화적 특성이 짙은 소재와 형상을 활
용하지만, 인도를 넘어 인간의 보편
적 문제를 취급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그가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바티 커는 인도의
대표작가인 수보다굽타(49)의 부인
이기도 하다. 전시는 10월5일까지.
(02) 735-8449 도재기 선임기자

jaeklee@kyunghyang.com